

'2020 세계 간호사의 해' 홍보 캠페인

간협, 전국 17개 일간신문에 광고 게재

대한간호협회는 2020년이 세계 간호사의 해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 광고를 게재했다. 간호협회는 신년 초 전국 중앙지 및 지방지 17개 일간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함께 시도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간호사신문(1월 2일자)에도 실렸다. 캠페인 광고는 'WHO 세계보건기구 지정, 2020 세계 간호사의 해' 메인 타이틀 아래 "간호사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할 수 없다" 및 "한국 간호 117년, 대한민국과 함께 달려오다"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간호사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할 수 없다"에서는 WHO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전했다.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은 모든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인 2020년을 전 세계 간호사에게 헌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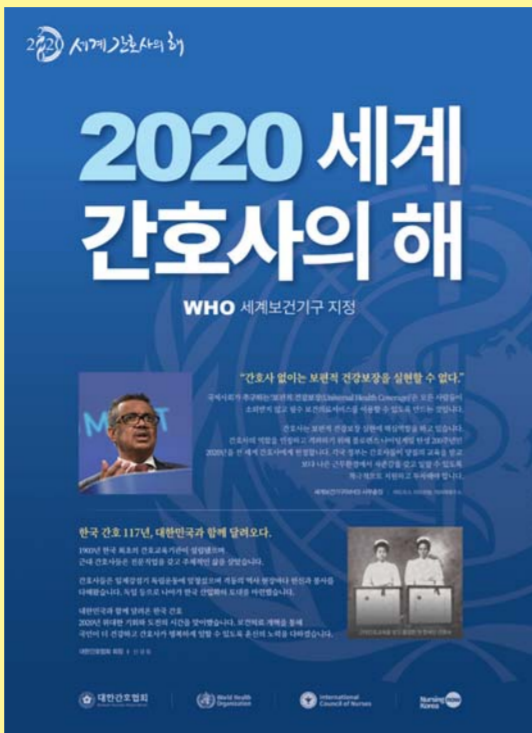
각국 정부는 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 간호 117년, 대한민국과 함께 달려오다"에서는 메시지와 함께 근대간호교육을 받고 졸업한 첫 한국인 간호사 김마르타와 이그레이스 사진을 실었다.

1903년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이 설립됐으며, 근대 간호사들은 전문직임을 갖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격동의 역사 현장마다 헌신과 봉사를 다해왔습니다. 독일 등으로 나아가 한국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달려온 한국 간호, 2020년 위대한 기회와 도전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보건의료 개혁을 통해 국민이 더 건강하고, 간호사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광고에는 대한간호협회가 개발한 '2020 세계 간호사의 해' 엠블럼도 함께 실려 눈길을 끌었다. 엠블럼은 세계 간호사의 해인 '2020년'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만난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는 의미로 두 숫자를 교차시켜 조합했다. 인류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표현하기 위해 지구를 모티브로 상징화했다.

특히 2020년과 200주년이 만나는 지점은 간호사의 손을 형상화한 형태로 디자인해 사랑 어느 곳이나 간호의 손길이 닿는다는 의미를 표현했다. 또한 나이팅게일의 등불을 시각화해 간호사들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불을 밝힌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경기도간호사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무자 간담회

경기도간호사회(회장 김인자)는 제2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무자 간담회를 지난달 노보텔 엠베서더 수원에서 개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인 수원 월스기병병원 박현진 간호부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개요 및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예정) 기관 간호사 49명이 현안문제에 대한 그룹 토론을 했다.

공유하며 지역 병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간호사회는 2018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실시(예정) 기관들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2020년에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유주 기자 yjchoi@

대구시간호사회 쪽방주민 사랑의 물품 나눔

대구시간호사회(회장 최석진)는 어려운 이웃에게 겨울나기 물품을 전하며 온정을 나눴다. 대구 중구 서성로 일대 쪽방촌(행복나눔의 집)을 찾아 방한용품, 라면, 반찬류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난달 전달했다.



이날 대구시간호사회 간호봉사단은 쪽방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실태를 살피고, 방한용품 등을 직접 전달하며 사랑의 물품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에서 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쪽방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사랑의 물품 나눔 봉사활동을 201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이진숙 기자 jslee@

경기도 구리시간호사회 '함께 나누미' 봉사

경기도간호사회 산하 구리시간호사회(회장 장재선)가 '함께 나누미' 봉사활동을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펼쳤다. 구리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구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중 약 50여명에게 쌀 10kg씩을 지급했다.



장재선 회장은 "어르신 나들이 봉사, 명사 특강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온 구리시간호사회가 이번에는 소외계층을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구리시간호사회는 회원들의 소통 강화, 간호봉사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7년 창립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유주 기자 yjchoi@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www.RNjob.or.kr ☎ 1522-1755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립 인세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8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최윤희 길병원 수간호사 '인천시장 표창'

최윤희 가천대 길병원 권역의상센터 수간호사가 인천지역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시장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인천시 주최,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주관으로 열린 '2019년 인천시 응급의료 협력강화 워크숍'에서 진행됐다.

최윤희 수간호사는 가천대 길



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서해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해인 1998

년부터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해왔다.

이어 2014년 개소한 인천권역의상센터에서 지금까지 환자를 돌보고 있다.

서해권역응급의료센터와 인천권역의상센터가 지속적으로 최상위 평가를 받는데 기여했으며, 후배들 교육에도 힘을 쏟아왔다. 특히 2019년부터 도입된 인천시 타터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맡은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유주 기자 yjchoi@

인 사

경남 합천군보건소 이미경 소장

경남 합천군보건소 소장에 이미경 합천군보건소 치매안심담당 임명됐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보건소장을 맡게 됐다. 1월 1일자.

이미경 소장은 대구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985년 공직에 임명됐다. 합천군보건소에서 방문간호계장·진료계장·치매안심담당, 합천군에서 위생계장 등을 지냈다.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보건향상 및 공공보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남도지사 표창, 경남간호사회 정기총회에서 대한간호협회장상을 받았다. 현재 경남간호사회 산하 합천군간호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미경 소장은 "합천군은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 통



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따른 간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를 맞았다"며 "중요한 시기에 보건소장을 맡게 돼 영광스러운 한편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합천군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월 현재 간호사 출신 보건소장은 이미경 소장을 포함해 모두 32명이다.

이진숙 기자 jslee@

박미란 동산병원 간호팀장 '대구시인협회상' 수상 조선일보 신춘문에 통해 시인 등단

박미란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팀장이 제29회 대구시인협회상을 수상했다.

대구시인협회는 2019년 출간된 회원들의 시집 30여권 중 심사를 통해 박미란 간호팀장의 시집 '누가 입을 데리고 갔다'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2019 대구시인협회 송년문학제에서 진행됐다.

박미란 간호팀장은 1995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시부분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첫 시집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다'를 펴냈고, 지난해 두 번째 시집 '누가 입을 데리고 갔다'를 내놓으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첫 시집에서는 주로 삶의 비애와 그 그늘들을 단아하고 절절한 서정적 언어로 그리면서 슬픔과 아픔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은 정서를 담담하게 떠올랐다"면서 "두 번째 시집은 그 깊이와 높이가 크게 달라져 있다"고 평가했다.

박미란 간호팀장은 "등단할 때는 겁없이 해보자는 마음이었



는데 막상 등단을 하고 나니 시가 무엇인가, 어떻게 써야 하나 등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다"며 "첫 시집이 생활적인 것을 풀어내려고 했다면 두 번째 시집은 언어를 중심으로 말을 아끼고 절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다음 시집에서는 지금과는 또 다른 방향의 작품을 선보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인이 늙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언어를 통한 감각과 사유로 끊임없이 자기를 버려내 세우는 일"이라며 "백적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할 수 있다면 그 버려내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길 희망해본다"고 밝혔다.

이진숙 기자 jslee@

간호사를 위한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

간호학 전문 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NAVER 검색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지원 응원 현장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